

'해망굴 명소화 사업' 추진

군산시, 아프지만 기억되어야 할 역사 스토리텔링 상징물로 표현

군산시가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2023년 10월부터 추진했던 '해망굴 명소화 사업'이 6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망굴 명소화 사업'은 해망굴 주변에 스토리텔링 상징물과 부조를 표현·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설치물들에는 일제강점기에 설치·건축된 뜬다리 부두와 군산세관 및 조선은행,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움막촌(신흥동 말뚝이 마을) 등 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를 담겨지게 된다.

설치물 외에도 군산시는 해망굴 앞



광장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 가며 과거 소중 장소이자 높아져야 했던 해망굴에 대한 옛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문화재 제184호로 지정된 해망굴은 길이 131m, 높이 4.5m의 터널로 군산

내항을 통해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한 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1926년 개통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중에는 북한군 지휘소가 있어 미군 공군의 폭격을 받았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군산과 아픔·기쁨을 함께한 해망굴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면서 "월명동 근대역사문화지구 방문한 관광객들을 해망동 수산물시장으로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의 관광지 9경 3락이 인천광역시까지 색(色)다른 매력으로 사로잡혔다.

익산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100여명 익산 대표 관광지 방문

익산의 관광지, 9경 3락이 인천광역시까지 색(色)다른 매력으로 사로잡혔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등 100여 명은 지난 11일 1박 2일로 익산을 방문해 벤치마킹과 연찬회를 실시했다.

먼저 11일 국립익산박물관과 미륵사지 일원, 나비위성당, 교도소세트장, 아가페정원 등 대표 관광지를 방문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백제왕궁박물관과 보석박물관을 여행하며 지역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일정에는 익산 관광 전문가인 해설사들이 함께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소개와 역사, 숨은 이야기 등을 설명하며 인천광역시 해설사들을 사로잡았다.

또한 양 기관의 해설사들은 1박 2일을 함께하며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시간

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500만 관광 도시 도약을 위한 익산시의 마케팅 전략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현장에서의 질의응답과 향후 관광 트렌드와 콘텐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먼 곳에서 발걸음해 주신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등 100여 분의 익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인천에서 익산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홍보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관광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9경 3락(익산의 9가지 구역거리, 3가지 큰 기쁨)이라는 새로운 관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500만 관광도시 익산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익산-유 주얼리 특화단지' 선정... 총사업비 3억1600만원 확보

보석의 도시 익산시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익산(KSAN)-유(U) 주얼리 특화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나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 산업을 뜻한다. 익산 지역에서는 보석 세공이 대표적인 뿌리산업으로 분류된다.

익산시는 해당 공모에 처음 선정된 2021년부터 지역 주얼리 기업들과 유

기적으로 협력해 공동 혁신 활동 사업을 발굴해왔다. 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 수탁자인 패션산업시험연구원도 주축이 됐다.

이듬해인 2022년부터는 주얼리 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익산 주얼리형 디지털 커머스 거점 공간인 '빛나는 스튜디오'를 조성했다.

시는 이와 연계해 올해는 온라인 상거래 고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 3년 간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인프리를 활용해 차별화된 성과를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공브랜드를 활용한 기업-소비자(B2C)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디지털 마케팅·라이브커머스 심화 교육 △국내외 공동전시회 참여를 통한 판로개척 △익산형 친환경 주얼리 인증제도 구축·디지털 물류 촬영 시스템 도입 등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정경호 시의원 발의

익산시의회 정경호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익산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청년들이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별

로 1명 이상의 청년 위원 위촉을 권장하고,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들의 통·폐합을 규정하고 있다.

정경호 의원은 "익산시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전혀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행정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익산시, 구시장 '이리와 포차 축제' 14~15일 개최

익산에서 초여름 밤대위를 시원하게 날릴 '이리와 포차 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오는 14~15일 저녁 5시부터 남부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익산 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리와 포차 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리'는 현 익산시 동 지역의 옛 이름이다. 축제 이름 '이리와 포차 축제'에는 과거 지명과 '이리로 오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겼다.

이번 축제에는 골뱅이무침부터 계란말이, 순대볶음, 해물과전, 두부김치 등 포장마차에 어울리는 80여 가지의 먹거리가 준비됐다.

푸짐한 양에도 불구하고 1만 원 안팎의 가격대로 제공돼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비비

큐 구역과 푸드 트럭 구역은 추가로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지역 업체인 하이트진로와의 협업을 통해 시원한 주류를 축제 방문객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다. 노래자랑·댄스배틀 등 방문객 참여형 행사는 물론 가수과 DJ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장을 찾은 이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축제장에서 지역 화폐 수단인 다이로움 카드를 이용하면 10% 추가 적립 이벤트까지 제공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시는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3주 동안 먹거리 판매자를 모집하고, 위생·안전교육 등 꼭 숙지해야 하는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노래하는 한의사 김오곤 원장 20일 강의

노래하는 한의사 김오곤 원장이 군산에 온다.

군산시는 김오곤 원장의 '100세 시대 건강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20일 오후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한다.

'노래하는 한의사로 잘 알려진 김오곤 원장은 동국대 한의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MBN '황금알', '엄지의 제왕', '체널A '갈 데까지 가보자'를 진행했으며, '항암약초 80가지', '한권으로 보는 본초강목', '약이 되는 산나물 142가지, 보약이 되는 들나물 139가지' 등의 한의학 베스트셀러를 저술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오곤 원장은 행복한 자기 건강 비결과 각자의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법 등을 다룬한 시제와 '김오곤의 건강술'을 통해 신비롭고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하세요"

군산시가 교육부 주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위한 사회적 참여 기회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을 진행한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군산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60명에게 1인당 35만원 상당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와 중복재단법에 따른 국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해당 장애인은 '보조금 2' 누리집(www.gov.kr)에서 오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는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이용권은 가까운 농협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한 2천 9백여 개 이용기관(군산 17개소)에서 사용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